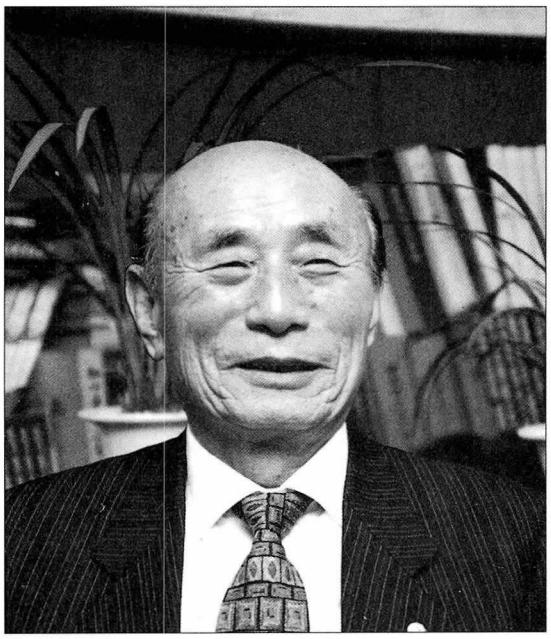
깊고 너른 뿌리 내린 출판계 거목

(재)한국출판금고 이사장직 퇴임하는 정진숙 명예 이사장



정진숙 명예 이사장.

"출판계가 어려울수록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출판계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언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판금고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 해왔으니 허전한 심정도 있지요. 다만 30년간 나의 영향력으로 출판금고의 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자위할 뿐입니다."

(재)한국출판금고의 실질적인 창립을 주도했고, 72년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5년간 살림을 꾸려온 정진숙 명예이사장(87)이 퇴임에 즈음해 밝힌 겸양의 심경이다. 출협 회장직을 맡으면서 출판계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출판금고'로 현실화시키기까지의 일들이 그에게는 마치 어제일인 듯하다.

1967년 당시 출협 회장직을 맡고 있던 정 회장과 임원들은 정부에 '도서발전을 위한 자금'을 국고에서 장기저리로 조달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68년에 아시아 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출판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서의 출판금고 설치를 희망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을 시작한다. 결국 68년 7월 문화예술진흥책의 일환으로 '출판금고 설치안'을 확정, 다음해 예산에 출판금고 기금보조금 5백만원을 책정했다. 여기다 회원사들이 5만원씩 기금을 모아 모두 '1천만원짜리' 사단법인 출판금고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10년간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여전히 기금확장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정부에서 언론금고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요. 같은 산하단체인 출판금고는 기금이 10억원밖에 안된다고 항의성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30억원씩 90억원을 받아내 지금의 100억원짜리 한국출판금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싶지만 영세한 출판사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정이사장의 기금 운용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또 독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150평 규모의 〈중앙도서전시관〉을 운영했고, 책판매 촉진을 위해 〈공통도서권〉도 발행했다. 좋은 책을 소개하기 위해 〈독서신문〉을 창간했지만 민간에 이양해 흐지부지되자 또다시 출판계 전문지의 필요성을 절감, 격주간 서평전문지 《출판저널》을 창간해 11년째 계속 발행해오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의 뒤엔 항상 정명예 이사장의 넉넉한 힘이 뒷받침됐음은 물론이다.

"출판계가 어려울수록 출판인들의 프라이드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실리적인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출판계 전체의 위상을 진정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언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미수(米壽)를 앞둔 고령이지만 정명예이사장은 매주 골프모임에 빠지지 않고, 점심식사 때 반주도 거르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대로 한국 출판의 산 역사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 출판의 일선에서 떠나 있지만 여전히 정명예이사장은 출판계에 깊고 너른 뿌리를 내린 거목임에 틀림없다.

— 김지원 기자

"설립 참뜻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터"

(재)한국출판금고 김낙준 신임 이사장

"이 위기상황에서 출판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갈하는 데 출판금고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준 이사장.

지난 2월12일 (재)한국출판금고의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김낙준(65, 금성출판사 회장) 이사장의 어깨는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이 위기 상황에서 출판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일에 어느때보다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출판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갈하는 데 출판금고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김이사장은 정진숙 전이사장이 다져놓은 업적을 결코 소홀함 없이 잘 살리겠다는 다짐이다. 아직 업무파악 중이지만 '출판금고' 설립의 참뜻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 살려나가겠다는 의욕 만큼은 확고하다.

우선 창립 목적의 가장 큰 뜻인 양서출판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74년부터 시작된 양서출판지원사업은 재단법인으로 재출발한 8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총 4205건 586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출판연구소를 통해 조사연구와 저작자개발지원사업에 9억2천여만원, 〈문체부 추천도서〉 〈이달의 청소년도서〉 〈문체부 선정 우수만화〉의 보급과 독서운동사업에 39억여원, 서평전문지 《출판저널》 발행과 도서전 지원 등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인 만큼 한계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업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이끌겠다는 원칙이다.

사실 출협 회장(92년~96년)직과 부회장직을 합쳐 10년간의 출협활동과 '책의해조직위원회' '독서새물결운동' 등 출판과 관련한 단체의 수장을 맡았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현직 출판경영인이라는 사실이 이번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다. 다만 사회 각 부분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일고 있는 만큼 '금고' 역시 출판계에 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차츰 '개선'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흔히 출판인들은 그를 가리켜 '칠전팔기의 의지의 인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의 인물'로 평가한다. 김이사장이 출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6·25 직후 대구의 '문화서점'에서 일하면서부터. 도소매점인 '한양서점'을 경영한 적도 있지만 《어린이 첫걸음》이라는 첫 책의 성공에서부터 최근 통신학습지 '푸르넷'에 이르기까지 금성출판사의 탄탄한 성장을 일궈냈다.

"'호구지책'으로 출판업을 시작했지만,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택할 만큼 행복합니다. 미래사회에 출판이야말로 첨단정보를 다루는 21세기형 산업이 아닐까요."

책 말고 김이사장이 가장 사랑을 쏟는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취미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한 그의 전통유물에 대한 식견이 수준급이다. 선조들이 빚어낸 탁월한 유물이 문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날 출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적 투자임을 깨닫는다. 선조들의 그런 지혜에서 '출판철학'을 배운다는 김이사장은 "40년 책과 함께 해온 인생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지원 기자